

다문화 사회공헌 사업의 영역과 유형 분석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이윤진
(안양대학교)

《목 차》

1. 서론
2. 논의의 배경
 - 2.1. 다문화와 사회공헌
 - 2.2. 사회통합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3. 연구 절차
4. 다문화 사회공헌 사업의 주요 영역
 - 4.1. 한국어교육
 - 4.2. 모국방문지원
 - 4.3. 한국요리교실과 음식나눔
 - 4.4. 장학사업
5. 다문화 사회공헌 사업의 유형별 특징
 - 5.1. 기업별 특화 사업
 - 5.2. 대상별 맞춤 사업
6. 결론 및 제언

<Abstract>

Lee, yun-jin. 2022. 2. 28. **Analysis of Areas and Types for Multicultural Social Activity Projects-From the Perspectiv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Social Integration.**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10, 155-18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importance and meaning of multicultural social contribution projects and identify trends of multicultural social contribution projects. To attain this objective, the study comprehensively reviewed and qualitatively categorized the data and media articles related to corporate multicultural social activities. As a result, ‘Korean language education’, ‘Home Visit Support’, ‘Korean cooking class and food sharing’, and ‘scholarship project’ were found as areas of multicultural social contribution projects. Furthermore, social contribution activity types were divided into ‘Specialized Projects for each Company’ and ‘Customized Projects for each Target’ and their characteristics were discussed. Based on the study, necessity of analyzing cases of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was evident from the perspectiv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social integra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used as primary data for setting direction of future multicultural social activity projects. (Anyang University)

[Key words] Multicultural, Social Contributi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Social Integration

1. 서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은 1996년에 기업윤리현장¹⁾에 명문화된 것을 시작으로 2010년에는 국제표준인 ISO 26000이 제정되면서²⁾ 선택이 아닌 필수 실천항목이

1) 기업윤리현장의 실천항목으로는 ‘기업시민으로 사회적 책임’, ‘정당한 이윤의 창출’, ‘공정경쟁’, ‘대기업-중소기업간 협력’, ‘소비자와 고객의 권익증진’, ‘기업구성원의 이익향상’, ‘환경친화적 경영’, ‘지역사회기여’ 등 총 8개항의 규범이 담겨 있다(“기업 윤리현장” 제정, <조선일보>, 1996년 2월 8일자).

라는 공감대가 조성되었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인식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영업 이익 창출이 별개로 간주되었던 것과 달리 이제는 기업의 사회공헌을 경제적 활동과 연계하는 전략적인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실행으로 변화하고 있다(윤수인 외 2020: 14). CSR활동은 기업의 이미지 개선 차원이 아닌 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장기 투자로 인식되기도(박인용 2013: 86) 하면서 각 기업에서는 그들의 자원을 사회 변화와 필요에 부응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발굴, 실행함으로써 책임경영에 힘을 쏟게 되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구현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 중에서도 다문화 관련 사업은 2010년을 전후하여 확연하게 증가하였다. 이 시기는 한국이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면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2008년), 제1차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 시행(2010년), 초중등 한국어 교육과정 고시(2012년) 등과 같은 다문화 관련 정책과 제도가 쏟아져 나왔던 때이다. 이 시기는 “포스코, 다문화가정과 ‘상생의 길’ 찾다” 라는 기사(경향신문, 2010년 7월 21일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업의 다문화 사회공헌의 양적 확대와 질적 성장의 전환점이 되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위한 다문화 사회공헌 사업은 현재 까지도 꾸준히 전개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향성이 어떠한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고찰한 성과는 아직 발견하기 어렵다. 이에 본고는 기업의 다문화 사회공헌 사업을 중심으로 그 사례와 유형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통해 다문화 사회공헌 사업이 갖는 중요성과 의미를 확인하고 현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다문화 사

2)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핵심 주제로 조직거버넌스,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운영관행,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등 7개 부문이 선정되었다.

회공헌 사업의 방향성 설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한다. 본고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다문화 사회공헌 사업의 주요 영역은 무엇이며 어떤 사례가 있는가?

둘째, 기업의 다문화 사회공헌 사업의 유형별 특징과 시사점은 무엇인가?

먼저 2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회공헌의 한 영역으로서 ‘다문화’의 측면에 주목한 배경을 논한다. 3장에서는 본 연구의 절차를 보이고 4장에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 사회공헌 사업의 주요 영역을 사례 중심으로 분석한다. 5장에서는 다문화 사회공헌 사업의 유형별 특징을 고찰하고 시사점을 논한다.

2. 논의의 배경

본 논의의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본 장에서는 다문화와 사회공헌, 사회통합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2.1. 다문화와 사회공헌

사회공헌의 사전적 정의는 “사회를 위해 힘을 써 이바지하는 일”(우리말샘)로, 넓은 의미의 “사회적·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이서연·박선영 2019: 74)이다. 사회공헌은 개인, 정부 및 지자체, 기업의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쓰이는 용어지만 특히 기업의 사회공헌은 경영 이익의 환원이라는 점에서 전자와 차별화된다. 최근에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윤수인 외 2020: 14)시키는 전략적 사회공헌 활동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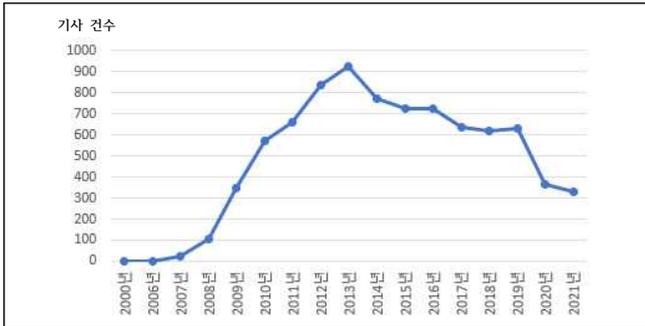
과거의 사회공헌 활동과 접근 방식이 달라진 점도 주목할 만하다.

사회 변화와 요구에 발맞추어 기업별 사회공헌 사업의 대상, 내용, 범위도 다양화, 다변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별 사회공헌 예산을 수치로 공개하면서 양적 기여도를 가늠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발간한 『2021주요 기업의 사회적 가치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매출액 대비 사회공헌 지출 비율은 3.7%(2020년도 기준, 세전이익 대비)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의 사회공헌에서 지출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취약계층 지원’ (33.8%) 사업이었고, 이에 이어서 ‘교육·학교·학술’ (24.9%), ‘문화예술·체육’ (12.1%), ‘응급·재난구호’ (4.3%) 순으로 기업의 사회공헌 지출 비율이 보고되었다.

기업의 사회공헌 중에서도 본고에서 다문화 관련 사회공헌 사업을 중점적으로 살피고자 하는 까닭은 한국이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관련 사회공헌 활동에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으나 이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성 파악을 위한 논의가 그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문화*사회공헌’을 키워드로 검색되는 관련 선행연구는 ‘방송 프로그램과 다문화 관련 사회공헌활동’ (정의철 2014), ‘지역사회공헌활동과 다문화인식개선’ (강기정 2016), ‘중장년 세대의 다문화 관련 사회공헌’ (이윤진 2021) 정도이다. 또한 유창조 외(2013)에서 논의한 ‘기업의 브랜드 비전과 사회공헌활동 사례’에서 기업의 다문화 관련 사회공헌에 대한 내용도 일부 포함되었으나 중점적인 논의 대상은 아니었다.

반면 2000년부터 2021년까지 ‘다문화*사회공헌’을 키워드로 검색되는 매체 기사 건수의 증감 추이(<그림 1>)에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의 기사 건수 평균(711건)만 보더라도 다문화 사회공헌 사업의 양적 팽창과 사회적 관심을 여실히 느낄 수 있다. 2000년대 초반에는 관련 기사가 부재하거나 미미하다가 2008년(107건)을 기점으로 다문화 사회공헌에 대한 기사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다.³⁾ 다만 코로나 팬데믹이 사회 전반을 강타한

시기(2020년~2021년)에는 관련 다문화 사회공헌 사업이 주춤하면서 관련 기사가 절반 정도로 감소했는데 이 역시 기업의 다문화 사회 공헌 사업과 사회 변화의 긴밀성을 잘 보여주는 근거라 할 수 있겠다.



<그림 1 ‘다문화*사회공헌’을 키워드로 검색한 연도별 기사 건수>4)

2010년을 전후로 새로이 시작된 기업의 대표적인 다문화 사회 공헌 사업을 찾아보면5) “LG와 함께 하는 사랑의 다문화 학교 (2011)” “하나다문화센터 ‘다린’ ” (2012) 등을 꼽을 수 있다. 먼저 “LG와 함께 하는 사랑의 다문화 학교” 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모 양쪽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익힘으로

3) 연도별 기사 건수는 2000년(1건), 2006년(1건), 2007년(21건), 2008년(107건), 2009년(345건), 2010년(570건), 2011년(663건), 2012년(836건), 2013년(928건), 2014년(773건), 2015년(726건), 2016년(728건), 2017년(638건), 2018년(618건), 2019년(629건), 2020년(365건), 2021년(331건)으로 나타났다.

4)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빅데이터 포털인 ‘빅카인즈(Bigkinds)’ 에서 검색한 결과이다.

5) 사회공헌센터(<https://crckorea.kr>)의 ‘사회공헌자료실 > 사회공헌 사례’ 의 순서로 접속하여 ‘다문화’ 로 검색한 결과에서 가져온 것이다. 괄호 속 숫자는 사업 시작 연도를 의미한다.

써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다음으로 하나금융그룹에서 설립한 하나다문화센터 ‘다린’은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웃들이 함께 문화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문화교류사업, 교류지원사업, 기타협력 사업 등을 펼치는 사업이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문화’와 ‘사회공헌’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본고에서 기업의 다문화 사회공헌 사업에 주목한 출발점이 되었다.

2.2. 사회통합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시대적 조류로 인식되면서 관련 논의(김용구 2000; 이상민 2002; 안혜신 2011; 박인용 2013; 유창조·이형일 2016)도 활발히 전개되어 오고 있다. 이전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제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공급자의 역할”에 방점이 있었다면 현대사회에 기업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은 “공급자로서의 역할 외에 수요자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기업 시민(corporate citizenship)”의 역할(이상민 2002: 78)로 규정되고 있다.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윤리와 통합되는 개념으로도 쓰이는데 기업이 이윤극대화 이상의 책임 있는 사회적 조직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김용구 2000)는 것이다.

앞서 2.1에서 살핀 사회공헌 활동(corporate philanthropy)이 구체적이고 고정적인 활동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인간적 가치의 창출을 강조하며 보다 광범위하고 유동적인 것을 의미한다(박인용 2013: 77). 즉 기업 윤리를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이자 행위가 사회공헌 활동이다. 기업은 “사회공동체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활동”(정지

유·정주영 2017: 132)으로서 사회 문제와 현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사회공헌 사업을 펼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것이다.

『2021 주요 기업 및 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⁶⁾에 따르면 2020 년도에 이루어진 기업 사회공헌은 ‘보건·의료 분야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지원(Health Care), 비대면 및 온라인 대면 프로그램(On-tact), 국가·사회적 문제해결 지원(Problem-solving), 국가적 재난 등 피해 구제/환경 친화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Environment)의 네 가지로 그 특징을 요약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여기에 보건·의료 분야, 비대면 및 온라인 프로그램 지원이 포함된 것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인식했는가를 방증한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 문제 해결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근거라 할 수 있다.

현재 당면한 문제뿐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업 사회공헌 실태 파악과 미래 전략 의제 설정에 대한 논의(사회공헌백서 2021: 88-91)⁷⁾도 찾을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환경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한 기업 사회공헌의 전환’과 사회 영역의 의제로서 기업의 리스크 관리를 넘어 “공평, 다양성, 포용력의 가치”(사회공헌백서 2021: 92-95)⁸⁾도 강조되고 있다. 이는 다문화사회에서 중요하게 인식되는 광의의 ‘사회통합’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통합은 “동화주의에 입각한 단일화 사회가 아닌, 다원화된 사회 구성원들이 상호존중을 통해 결속을 유지하고 결합해 나가는 과정”(오세

6)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사회적 책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1993년부터 「주요 기업 및 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7) 『2021 사회공헌백서』에 실린 전문가 칼럼 중 하나인 “기업 사회공헌의 역사적 흐름과 전략과제”(유승권) 참조.

8) 『2021 사회공헌백서』의 실린 전문가 칼럼 중 “‘포용적이고 재생가능한 사회’에 대한 요구”(서진석) 참조.

경, 김영순 2019: 172)이자 “사회적 포용, 사회적 융합, 사회적 응집이라는 세 가지 층위를 포괄하여 모든 사회구성원을 한 공동체의 틀에 맞게 조정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한 공동체가 다양한 개인을 수용하려는 노력”(김영순 외 2019)으로 설명되는데 이는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의 지향점과도 맞닿아 있는 까닭이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통합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사회통합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다문화 사회에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할 쟁점이라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기업의 다문화 사회공헌 사업 사례들을 사회통합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의 일환이라는 입장에서 논의를 진행한다.

3. 연구 절차

기업의 다문화 사회공헌 사업 영역과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본 논의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논의를 진행한다.



<그림 2 연구 절차>

먼저 1단계에서는 다문화 사회공헌 사업에 주목하게 된 까닭과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어서 2단계에서는 기업의 ‘사회공헌’과 ‘사회적 책임’의 개념을 살펴보고 기업의 다문화 사회공헌 사업과 사회통합의 긴밀성을 논한다.

3단계에서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선별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공헌센터에 공식적으로 요청하여⁹⁾ 받은 기업별 사회공헌사업 목록(총 387개 기업)에서 ‘다문화’를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총 74개 기업)를 추출하였다.

연번	기업채명	나눔와 관련사업 포함여부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 개요
8	금호타이어	*	○ 한사랑회 소외계층 지원활동 ? 희망나눔 집짓기(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중증장애
9	현대엔지니어링	*	○ 디딤돌 하우스 프로젝트 ? 쪽방촌 거주민의 주거복지에서 자활까지 통합 지원하
10	현대차정몽구재단	*	○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의 회장의 개인 출현으로 설립한 재단
11	동서석유화학(주)	*	○ 세계인의 생명과 삶에 공헌한다'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과 문
12	희망이음	*	(주)희망이음은 교육과 복지가 결합된 사업시스템을 활용한 사회적 임팩트를 만들어
13	삼성카드	*	○ 열린재단? 고객들이 직접 제안, 추천 및 투표를 통해 선정하여 삼성카드와 함께
14	미래에셋대우	*	○ 다문화 지원사업? 경제교육지원, 인식개선 콘텐츠 개발, 다국어 한국요리책 제공
15	LG엔시스	*	○ 임직원 자원봉사활동? 지역 사회보호대상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저녁식사를 대
16	현대종합상사	*	○ 사회복지복지재단 '꿈여플공' & "故" 정수경 '정남자의 & "산자외복지재
17	하나금융그룹	*	○ 하나 Kids of Asia?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중언어 발달과 건강한 정체성 확립지
18	하이자산운용	*	○ 복지관 봉사활동?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소개 받은 가정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19	포스코ICT	*	○ IT 봉사단? 저소득층 아동들이 IT를 배울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에 PC지원 및
20	아산나눔재단	*	○ 아산나눔재단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꿈을 현실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며 부족
21	현대오토배너	*	○ 결식아동 후원? 매칭그랜트 제도를 통하여 매년 약 70여명의 아동 급식비 및 장

<그림 3 다문화 사회공헌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체 자료 추출 결과(일부)>

9) 본 연구의 목적과 의도를 밝힌 후 사회공헌사업 실무자(최민규 대리)로부터 기초 데이터를 2021년 9월 23일에 전자메일로 전송받았다. 사회공헌센터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소속 기관으로 2007년에 신설되었으며 본부 두 곳(서울시, 충북)과 9개 센터(중앙, 부산, 대구, 울산, 충남, 전북, 경북)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 사회공헌센터는 ‘사회공헌 종합정보 제공’, ‘사회공헌 네트워크 거점 구축’, ‘사회공헌 컨설팅 서비스제공’, ‘사회공헌 문화 주도’, ‘사회공헌 전문인력 양성’을 비전으로 삼아 사회공헌의 올바른 분위기 조성 과 나눔의 문화 형성을 위해 힘쓰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다.

<그림 3>과 같이 목록화한 데이터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매체기사와 기업별 홈페이지 검색을 병행하면서 교차 검토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회성으로 그친 사업, <그림 3>의 목록에 있더라도 다문화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라 판단되는 것은 배제하였다. 반면 <그림 3>의 목록에는 없지만 자료 검색 과정에서 새로운 다문화 사회공헌 사업에 대한 정보가 발견된 경우는 분석 자료에 포함하였다.

4단계는 기업의 다문화 사회공헌사업을 질적으로 의미 범주화하는 단계이다.¹⁰⁾ 각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충실히 진행되고 있는 주요 사업 영역(한국어교육, 모국방문지원, 한국요리와 음식나눔, 장학사업)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다문화 사회공헌 사업의 유형(기업 특화 사업, 대상별 사업)으로도 분석하고 그 특징을 논하였다. 끝으로 5단계에서는 논의 결과를 종합하고 향후 방향성 등에 대해 제언한다.

4. 다문화 사회공헌 사업의 주요 영역

본 장에서는 다문화 사회공헌사업의 주요 영역을 크게 한국어교육, 모국방문지원, 한국요리와 음식나눔, 장학사업으로 범주화하여 살펴본다.

10) 기업별 사회공헌 사업의 규모, 예산, 대상, 운영 방식 등이 다양한데 다 방대한 자료를 전수조사하여 양적 수치로 밝혀내는 작업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고는 전반적인 경향성을 살피는 기초적인 논의에 목적이 있는 만큼 분석 데이터의 의미 범주화를 통한 질적 접근 방식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4.1.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은 기업의 다문화 사회공헌 사업 중에서도 가장 널리 진행되는 사업 중 하나이다.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은 한국생활 적응 및 기초학력의 토대가 되며 다문화 구성원의 교육격차,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필수적인 만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국어교육 영역의 구체적인 사업 사례로는 학습지 교사가 다문화가정에 방문해 수준별 학습지를 활용하여 다문화 아동의 한국어 공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1a), 성인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프로그램(1b) 등이 있다. 다문화 한국어 학당 사업(1c)은 다문화 아동, 탈북 아동을 대상으로 전문 한국어 강사를 신청기관에 연계하여 실시간 원격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시작되었다.

- (1) a. “대교, 다문화가정 어린이 국어교육 책임진다”, <머니투데이>, 2008년 11월 21일자.
- b. “금호타이어, 베트남 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모빌리티뉴스>, 2012년 7월 30일자.
- c. “함께하는 한숲, KB국민카드·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2021년 청소년의 미래 밝히는 ‘다문화 한국어 학당’ 진행”, <한국강사신문>, 2021년 2월 15일자.

한국어교육 사업은 기업별로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하는 형태(1a)도 있으며 다문화센터나 유관기관에 위탁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1b-c)도 있다. 최근에는 한국어교육에만 치중하지 않고 언어교육이라는 큰 틀에서 이중언어교육 사업으로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4.2. 모국방문지원

기업의 다문화 사회공헌 중 모국방문지원 사업은 가정 형편으로

인해 국내 입국 이후 모국 방문이 어려웠던 결혼이주여성에게 친정 방문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주여성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고 다문화가정 자녀는 엄마 나라를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삼성생명에서는 일찍이 2000년대 후반부터 이주여성 모국방문 프로젝트(1a)의 일환으로 여성단체와 손잡고 동남아 출신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을 선발하여 모국 방문을 지원했다. 국민은행에서도 형편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을 선정하여 방학 기간에 가족들의 모국방문을 지원하는 사업(2b)을 2012년부터 펼치고 있다.

- (2) a. “삼성생명 “동남아 출신 며느리들 친정 다녀오세요””, <아시아경제>, 2007년 8월 1일자.
- b. “국민銀,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인원 선발”, <머니투데이>, 2013년 12월 24일자.
- c. “포스코1%나눔재단, 다문화가정 '모국 방문' 지원”, 쿠키뉴스, 2019년 10월 28일자.

다문화 사회공헌 사업에 많은 관심을 쏟아 온 포스코에서는 2011년부터 임원과 부장급 직원들이 급여의 1%를 기부해 왔고 2013년에는 ‘포스코1% 나눔재단’을 설립했다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특히 미래 세대와 다문화가정,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 모국 방문’ (2c)은 2019년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최근에는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 모국방문사업 수행에 제약이 따르는 만큼 이를 대체하는 사회공헌 사업의 발굴 및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문화가정의 국제특급우편 요금 지원 및 할인¹¹⁾,

11) 아직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으로서는 눈에 띄지 않지만 지자체 사업의 한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경기도와 경인지방우정청은 도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연중 국제특급우편(EMS) 요금(10%)를 감면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국내 조기 정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경기도, “다문화가족에 연중 국제특급우편 요금 10% 할인” ... ‘조기 정

모국 가족을 위한 한국 기념품 지원 등이 가능할 것이며 코로나 팬데믹 상황 종식 이후에는 모국방문지원 사업을 ‘모국의 부모 초청 지원’, ‘출산 전후 결혼이주여성의 친정부모 초청사업’ 등으로 탄력적으로 전환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4.3. 한국요리교실과 음식나눔

기업의 다문화 사회공헌 사업 중 한국요리교실과 음식나눔에 대한 것도 폭넓게 실행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이다. 일회성 이벤트 성격의 행사도 있으나 다문화가정 주부들이 한국요리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한식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한 다회기 프로그램(3a)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김장철에 함께 김치를 담가 보기도 하고(3b) 함께 만든 김치를 나눔 활동(3c)으로 체험하게 하는 프로그램 등이 있다. 특히 (3a)에서는 다문화가정 주부와 한국인 주부를 한 팀이 되어 함께 요리를 체험하고 자국의 이색 음식도 만들어 함께 맛보는 ‘포트럭파티’ 행사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 (3) a. “CJ제일제당, 다문화가정 주부 쿠킹클래스 운영”, 2010년 6월 28일자.
- b. “CJ그룹, 다문화 가족 위한 ‘김장클래스’ 진행”, <시사매일>, 2012년 11월 15일자.
- c. “한화생명·한화손보, 다문화지원센터 김장나눔행사”, <매일신문>, 2018년 11월 27일자.

사회공헌 활동으로서 요리교실과 음식나눔 사업은 음식문화를 매개로 정주민과 이주민, 이주민과 이주민의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소통할 기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또한 음식을 함께 맛보고 나누며 유대감을 형성하고 서로 배려하고 나눔을 경험할 수

참 지원’ “, <이코노뉴스>, 2021년 12월 29일자.)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음식문화와 관련된 향후의 사회공헌 사업은 음식문화의 다양성을 알리고 체험하는 방향으로 더 확장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는 주로 한국인 강사가 주축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이주민과 정주민 요리 강사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출신 지역과 국적 구분 없이 누구나 요리교실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수 있다. 또한 이주민이 언제나 사회공헌 사업의 수혜자의 입장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주민 선배들이 모국 음식을 만들어 초기 정착 이민자 가정이나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음식 나눔을 실천하는 시스템 구축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4.4. 장학사업

장학사업은 저소득층이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도록 장학금 및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역사가 긴 형태 중 하나이다.

- (4) a. “하나금융, 다문화가정 지원 ‘앞장’ ”, <이투데이>, 2011년 7월 14일자.
- b. “롯데그룹-‘만분클럽’ 환경기금 기부 다문화 가정 후원 사업도. <경향신문>, 2008년 3월 31일자.

하나금융은 천주교 산하 사회공헌단체인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과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및 나눔문화 확산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4a) 바 있고 롯데그룹에서도 다문화가정 후원 사업(4a)에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져왔다.

장학사업의 경우 수혜자를 미리 선발하여 학업의 수월성을 보장해 주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학업 및 진로 탐색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방편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공

인 시험의 검정료를 지원해 준다거나 잠재적 수혜자가 자신이 세운 학업 목표를 정해진 기간에 성취했을 때 지급하는 조건부 장학금 또는 격려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장학금 수혜자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또 다른 수혜자를 위해 교육 봉사를 자발적으로 하도록 독려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선순환적인 장학사업이 될 것이다.

5. 다문화 사회공헌 사업의 유형별 특징

본 장에서는 다문화 사회공헌 사업 유형을 기업별 특화 사업과 대상별 맞춤 사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서 그 특징을 논한다.

5.1. 기업별 특화 사업

본고에서는 기업의 중점 사업이나 방향성이 다문화 사회공헌 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된 것을 기업별 특화 사업으로 보았다. 이를테면 금융 관련 기업에서 ‘경제교육’을 하거나 매체 및 방송 관련 기업에서 ‘방송인재육성’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들 수 있다.

- (5) a. “법무부와 이민자 대상 경제교육 실시”, <매일경제>, 2016년 5월 2일자.
- b. “CJ ENM 오쇼핑 "다문화 가정 청소년, 글로벌 방송 인재로 육성", <전자신문>, 2019년 10월 22일자.
- c. “다문화 아이들 '한글·한국문화 교육'... 랜선 타고 전해진 KT의 선물”, <경인일보>, 2022년 1월 20일자.
- d. “더페이스샵·(사)지구촌사랑나눔, 이주민여성에 화장품 전달”, <동포타운신문>, 2014년 4월 16일자.

먼저 금융 분야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살펴보면 미래셋대우가 법무부와 함께 진행한 이민자들을 위한 경제 교육 프로그램 소식(5a)을 접할 수 있다. 해당 기업에서는 교재 개발과 강사 업무를 맡고, 법무부는 교육장소와 교재 발간을 지원하였다. 이 사업은 대한민국 시장경제에 대한 이민자들의 이해도를 높여 한국 사회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교재는 8개 언어로 번역된 바 있다.

다음으로 미디어 관련 기업의 특화된 사회공헌 사업 사례를 들 수 있다.(5b)는 CJ ENM 오쇼핑이 주최하고 비영리사단법인 아시아 교류협회가 주관한 사업으로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이 해외 직무를 체험하며 부모 나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글로벌 방송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¹²⁾

셋째, KT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 '랜선에듀'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여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중도입국가정의 초등생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5c). 이 사업에는 강남서부광역본부, KT노동조합 강남지방본부, 경기도교육청, 대교가 손을 잡았으며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도 연관이 있다. 한편 화장품 기업인 더페이스샵이 이주민여성에게 화장품을 전달한 것(5d)도 기업별 특화 사업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상으로 살핀 바와 같이 기업별 특화 사업은 물품 지원을 비롯해서 기업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교육사업까지 확장성을 가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기업별 특화 사업은 전략적인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실행으로 연계하여 기업의 이미지 및 영업 이익 제고와 같은 파급 효과를 끌어내기가 용이하다. 향후의 기업별 특화 사업은 단발성의 체험 행사나 일시적인 교육을 넘어 중장기적인 진로 및 취업 훈련으로까지 연계되는 것이

12) 행사 내용 중에는 CJ ENM 오쇼핑 부문이 운영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 비디오(V) 커머스 콘텐츠 제작 센터 '다다(DADA)스튜디오 베트남'에서 미디어 콘텐츠 제작 과정을 참관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바람직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의 관점에서 볼 때, 글로벌 다문화 우수 인재 육성 및 성장 지원을 위한 장기 투자로서 각 기업의 특화 사업이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5.2. 대상별 맞춤 사업

다문화 사회공헌 사업의 주요 수혜 대상을 기준으로 삼아 보면 크게 아동·청소년,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족 전체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본 절에서는 대상별 맞춤 사업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들을 보이고자 한다.

5.2.1. 아동·청소년 대상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의 대상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연령대는 아동·청소년이다.¹³⁾ 기업의 다문화 사회공헌 사업 중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업으로는 언어교육, 문화예술교육, 역사/놀이 체험, 학습/진로 교육학비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13) 『2021 주요 기업의 사회적 가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신규 사회공헌 프로그램에서 아동·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전체의 50.8%를 차지했다(8쪽).

<표 1 아동·청소년 대상의 맞춤 사업>

구분	내용
언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금융그룹 ‘다린’ - “하나 Kids of Asia” : 이중 언어 및 부모나라 문화 교육 • 미래에셋대우 ‘박현주재단’ : 이중언어교재 개발(전자책),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개최
문화예술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성카드 - “젊은 예술가·다문화 학생 위한 ‘상생 무대’” : 공연 수익금을 다문화 학생들의 문화예술 교육비로 지원 활동
역사/놀이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성물산 - “Go(古) Together” : 고궁, 유적지 견학 등 역사교육 실시(2014~) • CJ나눔재단 “다문화 아동과 남산 ‘봄소풍’ ” : 어린이날 기념 체험 행사(남산타워, 청와대 방문)
학습/진로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금융그룹 ‘다린’ - “다문화 가정 학생 멘토링” 지원 • 코오롱글로벌 - “무지개디딤돌멘토링”(2015~)¹⁴⁾ : 같은 다문화 배경의 대학생에게 학습멘토링 받음 • KB국민은행 - “KB스타비(飛) 꿈틔움 다문화기술학교” : 다문화가정 사회초년생 대상 전문기술 및 한국어 학습 지원
학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금융그룹 ‘다린’ -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인재 DB’ 선발 : 다문화 가정의 우수 학생에 대해 장학금 수여 • KT그룹 콜센터 업무 자회사 케이티스 : 다문화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와 학습보조비 지원, 중고생 장학금 지급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언어교육’에는 이중언어교육과 부모나라 문화 교육 및 관련 행사가 포함된다. ‘문화예술교육’은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14)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활동의 제약이 따르게 되면서 비대면으로 소통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했다.

‘역사/놀이 체험’에서는 주요 유적지 및 고궁 견학을 통해 역사를 배울 수 있고 특별한 날 열리는 행사 참여로 아동·청소년에게 새로운 경험과 추억을 쌓도록 한다. 최근에 다문화 배경 아동·청소년의 학습/진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생 멘토링과 전문 기술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특히 코오롱의 ‘무지개 디딤돌 멘토링’은 같은 배경을 가진 대학생들이 멘토가 되어서 학교 공부와 문화체험을 함께 하는 것이다. KB스타비(飛) 다문화기술학교는 다문화 사회초년생을 위해 2016년 개교하였으며, 이미용, 용접, 관광가이드 자격증 취득 교육,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실습, 인턴활동 기회를 제공한다.¹⁵⁾

이상의 사례 외에도 아동·청소년의 학비 지원도 다문화 사회공헌 사업의 한 축을 이루고 있으며, 2020년도 신규 사회공헌 사업 중에 다문화 배경 초등생의 심리 상담/치료 사업(삼성전자서비스)을 발견할 수 있다(전국경제인연합회 2021: 49). 이 사업에서는 전문심리상담사와 연계하여 미술, 음악 활동을 통한 심리 상담/치료를 하도록 한다. 심리적 불안을 겪는 다문화자녀의 정서 안정 및 성장 지원이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에 시의적절한 다문화 사회공헌 사업이라 판단된다.

5.2.2. 결혼이주여성 대상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사회공헌 사업에서 한국어와 음식문화 교육에 대한 것은 앞서 4장에서 살핀 바와 같다. 결혼이주여성 대상의 사회공헌 사업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정주민과의 네트워크 형성, 취업/일자리 관련 사업이다.

15) “국민은행, KB스타비(飛) 꿈딴움 다문화 기술학교 개강”, <국민은행> 2016년 4월 27일자.

<표 2 결혼이주여성 대상의 맞춤 사업>

구분	내용
한국어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스코TMC '급여 1% 나눔 기금 후원사업'으로 운영비로 지역 다문화센터에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 지원 (2014)
음식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에셋대우 : 다국어 한국어 요리책 무료 배포(2009년~) • CJ그룹 "다문화가정 여성 초청 김장클래스 진행"
정주민과의 네트워크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스코 "결혼이민여성 친정 식구 되어주기" : 성공적인 한국문화 정착을 위해 회사 임직원 가족들과 결혼이민여성 1대1 결연(2012년)
취업교육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스코ICT "사내 다문화카페 'cafe Wee'"오픈¹⁶⁾ : 사회적 협동조합 카페 '카페오아시아'와 공동 운영하여 결혼이주여성 고용 • 케이티씨에스(kt cs) "콜센터 견학 및 긴급 전화 활용법 교육"

<표 2>에서와 같이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사회공헌 사업의 특징은 한국 정착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에 관심이 높다는 점이다. 이민자에게 있어서 “주류집단과의 관계는 정착의 핵심적인 척도이자 이민자 집단 내부에서는 동원하기 어려운 사회적 자본 형성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 (김이선 외 2021)를 갖는다는 점에서 볼 때 정주민과의 네트워크 형성은 향후에도 더욱 힘을 쏟아야 할 사회공헌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취업교육과 일자리 창출은 자기 계발과 경제적 자립을 원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요구에 매우 부합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16) 포스코P&S는 지난 2010년부터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요리체험, 공예교실, 체육대회 등 다양한 사회공헌 지원사업에 참여하였고 다문화 결혼 이주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다문화카페 '카페오아시아'도 운영하고 있다.

5.2.3. 다문화가족 대상

다문화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공헌 사업에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행사 개최, 현물 지원, 모국방문, 상담서비스 제공을 꼽을 수 있다.

<표 3 다문화가족 대상의 맞춤 사업>

구분	기업	내용
캠프 및 행사 개최	동부화재, 롯데케미칼, 삼성전기, 한화케이칼, 한화이글스, 포스코건설	• 단독이나 지자체 및 지역 다문화센터와 연계하여 캠프 진행 또는 명절 음식 나누기 행사 실시
현물 지원	하나금융그룹, 대우인터네셔널(포스코)	• 김장 나눔
	LG실트론, LG엔시스 더페이스샵, 미래에셋대우, 대교, 케이티스(kt is), 한화손해보험	• 도서기증 • 바자회 수익금 전달 및 지역 다문화가족 센터와 연계하여 지원
모국방문	현대종합상사, KB국민은행, 금호타이어, 포스코ICT	• 모국방문 지원
상담서비스 제공	케이티스(kt is)	• KT “‘Together 콜센터’ ¹⁷⁾ : 다국어 상담지원(2013~)

다문화가족 대상의 맞춤 사회공헌 사업 중 눈여겨볼 만한 것은 다국어 콜센터를 통한 상담서비스 제공이다. 2013년에 개소한 ‘Together 콜센터’에서는 유·무선 통신 서비스 불편사항 처리와 함께 생활에 대해 다국어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17) “KT, 통신업계 최초 '다문화가정 상담서비스' 제공...‘Together 콜센터’ 개소”, <세계일보>, 2013년 3월 20일자.

6. 결론 및 제언

이상으로 본고에서는 다문화 사회공헌 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그 영역과 유형을 고찰하였다. 그간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구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되어 있으나 ‘다문화’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관련 논의는 본격화되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다문화사회로 급격하게 진입한 한국 상황에서 기업의 다문화 사회공헌 사업의 경향성을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기업의 다문화 사회공헌 사업 관련 데이터와 매체 기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분석한 결과, 다문화 사회공헌 사업의 주요 영역으로 ‘한국어교육’, ‘모국방문지원’, ‘한국요리교실과 음식나눔’, ‘장학사업’을 들 수 있었다. 한국어교육 사업은 이주민이 한국 생활의 첫 번째 관문인 언어장벽을 낮추는 데 기여한다. 모국방문지원 사업은 가정 형편으로 친정에 가기 어려웠던 결혼이주여성에게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그간의 향수를 달래고, 다문화가정 자녀에게는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한국요리교실에서는 요리 배우기뿐만 아니라 정주민과 자연스러운 인적 교류의 장을 제공하면서 여러 나라의 음식문화를 접하고 나눔도 실천하도록 한다. 장학사업은 많은 기업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다문화 사회공헌 사업으로 저소득층 지원 및 우수인재 육성에 목적을 둔다.

다음으로 본고에서는 사회공헌 사업의 유형을 ‘기업별 특화 사업’과 ‘대상별 맞춤 사업’으로 구분하여 논하였다. 기업별 특화 사업은 기업이 가진 인프라를 기반으로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특히 전략적인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실행으로 기업의 이미지 및 영업 이익 제고와 같은 파급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를테면 식품 기업에서는 한국의 식문화와 요리법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정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여러 나라의 음식

문화를 매개로 자연스럽게 유대감을 형성하는 장을 마련할 수 있다. 한편, 기업의 다문화 사회공헌 사업 중 대상별 맞춤 사업에서 주목할 만한 것으로, 아동·청소년에게는 학습/진로 측면을 넘어 심리/정서 지원 사업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점, 결혼이주여성에게는 정주민과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취업교육/일자리 창출 등에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으로 본고에서 살핀 다문화 사회공헌 사업의 영역별, 유형별 사례들은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모두 의미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사업의 효과성 검증이나 결과의 기여도 측면까지는 본 논의의 대상으로 다루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다문화 사회공헌 사업을 분석하고 조망하여 그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한 첫 번째 시도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본고를 계기로 다문화사회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의 관점에서 사회공헌 사업을 보다 세밀히 논의할 필요성이 부각되었을 것으로 본다.

앞으로 기업의 다문화 사회공헌 사업은 특정 소외계층에 편중된 수혜자 중심이 아니라 아동·청소년부터 노년층, 이주민과 정주민을 포괄한 다문화사회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연결’, ‘다양성’, ‘포용’이라는 관점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사회공헌 사업의 수혜자가 시혜자가 되어 나눔을 되돌려주는 선순환적인 시스템 안착을 위한 아이디어도 필요하다. 기업 윤리를 바탕으로 다문화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 의식과 진정성,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의지와 지속가능한 지원이 총체적으로 뒷받침될 때 다문화 사회공헌 사업은 보다 큰 파급력을 수반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기정(2016). 지역사회공헌활동이 다문화인식개선에 미치는 효과 연구, <가정과삶의질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가정과삶의질학회. 275쪽.
- 김영순 외(2019). 다문화 생활세계와 사회통합 연구. 북코리아.
- 김용구(2000).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사회적 반응으로서의 발전과정과 기업지배구조의 윤리성과 정당성으로의 진화과정, <연세경영연구> 37(2),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 205~249쪽.
- 김이선 외(2021). 이주여성의 사회적 포용을 위한 정책 대응 방안-사회 참여 확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2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240쪽.
- 박인용(2013).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논집> 13, 한국정책연구원. 74~88쪽.
- 안혜신(2011). 기업의 사회책임광고 캠페인전략 연구, <디자인학연구> 24(3), 한국디자인학회. 271~283쪽.
- 오세경·김영순(2019).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본 동남아시아계 결혼 이주여성의 여가경험과 의미.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8(2),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169~191쪽.
- 윤수인 외(2020).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웰니스학회지> 15(4), 한국웰니스학회. 13~25쪽.
- 유창조 외(2013). KB국민카드의 브랜드 비전과 연계된 사회공헌활동 사례, <소비자학연구> 24(4), 한국소비자학회. 223~242쪽.
- 유창조·이형일(2016). CJ그룹의 CSV 경영, <Korea Business Review> 20(4), 한국경영학회. 155~181쪽.
- 이상민(2002). 기업의 사회적 책임, <韓國社會學> 36(2), 한국사회학회. 77~111쪽.

- 이서연·박선영(2019). 중장년 세대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지역사
회문제 해결 가능성 모색-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사례를 중
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2019.10)>,
한국가정관리학회. 73~77쪽.
- 이윤진(2021). 다문화학습지원단 양성과정' 운영 사례 연구 - 중
장년 세대의 사회공헌과 한국어교육의 관점에서, <외국어로
서의 한국어교육> 63,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165~193쪽.
- 전국경제인연합회(2021). 2021 주요 기업의 사회적 가치 보고서.
전국경제인연합회.
- 정의철(2014). 지역방송의 다문화프로그램과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연구, <韓國 言論學報> 58(2), 한국언론학회. 191~218쪽.
- 정지유·정주영(2017). 문화예술사회 공헌활동의 효과성 검증 연
구, <문화산업연구> 17(1), 한국문화산업학회. 129~139쪽.
- 한국사회복지협의회(2021). 2021 사회공헌백서(사회공헌센터). 한
국사회복지협의회.

<관련 홈페이지>

사회공헌센터(<https://crckorea.kr>)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https://www.bigkinds.or.kr>)

KSA 한국표준협회(<https://www.ksa.or.kr>)

필자 소개

성 명 : 이윤진

소 속 : 안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37번길 22 [우편번호]14028

전자우편 : smile-yunjin@hanmail.net

투고일: 2022. 2. 28 / 심사일: 2022. 3. 20 / 심사완료일: 2022. 3. 25